

거룩한 열망

롬 15:14-21

앞서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실천적인 권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시작되는 로마서 15장 14절 이하는 이미 바울이 1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바울 자신의 사명을 다시 언급하고, 이 사명을 따라 앞으로 자신의 후기 사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로마 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1. 바울은 먼저 선하고, 서로를 가르칠 만큼 박식한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15:14). 그러면서 이미 1장에 언급한 바 있는 바울 자신의 사명,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신의 직분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15:15-16). 로마 교회에게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하고, 더불어 복음의 동역자로서 이 선교사역을 함께해 줄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1.1. (관찰) 15장 16절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 직분을 하게 하사 ()을 ()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 하려 하심이라"

1.2. (관찰)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설명할 때 간혹 제사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고 삶의 마지막이 다다랐을 때, 자신의 지난 사역을 반추하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때 바울이 자신의 지난 삶의 여정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딤후 4:6)

"()와 같이 내가 벌써 ()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1.3. (나눔) '전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자신이 드린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다메섹도 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드렸습니다. '전제'와 같은 삶은 무조건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살게 하는 평생의 은혜와 감사제목을 팀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2. 바울은 자신의 이후 사역 계획이 로마를 거쳐 서바나(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로마 교회를 향해 이 선교사역에 동역자로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15:24). 스페인까지 가는 것은 바울이 생각한 땅 끝으로 세계선교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세계를 한 바퀴 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2.1. (관찰)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15:25-26)

2.2. (관찰) 앞으로 바울의 선교일정은, 현재 머물고 있는 고린도 → 예루살렘 → 로마 → 스페인입니다. 이동거리로 치면, 약 4800km나 됩니다. 이동하는 중간에도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

다. 그러면서 노구의 바울은 건강상태도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멈추지 못하게 만든 이유(말씀)는 무엇입니까?(15:21)

2.3. (나눔) 모든 사람이 주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슴에 품은 바울은 땅의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정진했던 사도였습니다. 각 선교지에서 맺은 열매를 보는 기쁨이 바울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일 년에 수차례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이번 겨울선교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참여했었던 선교에서 누렸던 기쁨과 감격들을 서로 나눠봅시다.

2.4. (나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기도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 삶을 향한 결어(結論)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의 작곡자 고희원 선교사가 만든 노래 가운데 〈땅 끝에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우리 주님을 뵈올 땅의 끝을 고대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위로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뵈오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바울의 거룩한 열망은 그의 기질 또는 타고난 성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15:15)'로 말미암은 사로잡힘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사로잡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드릴 노래를 가득 채워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